

---

# 일반논문

---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 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오찬호

노동정치 유형과 민주주의 진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영국, 스웨덴의 비교 고찰 및 한국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송병현

#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 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20대 대학생들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따른 침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흥분한다. 이와 같은 20대의 헛갈리는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들 ‘후기청소년 세대’라고 표현한다. 이 명칭은 그들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피해자임을 증명한다. 이 개념은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이들 중 55%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20대의 상황에 세대사회학과 감정의 사회학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응용한다. 후기청소년 세대는 지위와 보상의 문제가 얽힌 ‘취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회적 상황은 이들 세대를 ‘수치심’이라는 사회적 감정변수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학생들은 취업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부터’ 찾을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귀인에 따라 제각기 구체화된 행위자들이 바로 후기청소년 세대 ‘내’ 세대 ‘들’이다. 이 연구는 이를 1단계 참여관찰, 2단계 심층인터뷰, 3단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그 이유는 매우 ‘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20대 대학생들은 이 세대가 필연적으로 공유하는 취업문제에 대한 제각기의 해석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에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었다.

: 후기청소년 세대, 세대사회학, 감정의 사회학, 칼 만하임, 잭 바바렛, 민주주의

## 1. 들어가며

### 1) 무서운 20대? 무기력한 20대?

이 연구의 제목을 보는 대다수가 ‘후기청소년 세대(post-adolescent generation)’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을 표할 것이다. 이 개념은 대중적인 세대 명칭이 아니다. 여기서는 20대 대학생을 칭한다(이러한 이유는 2절에서 언급). 우선, 20대 대학생들에 대한 이 연구의 전제를 ‘20대 포기론 논쟁’을 통해 살펴보자. 2009년도의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인 이 논쟁은 한양대학교 김용민 교수가 충남대학교 신문사에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는 칼럼을 기고하자, 20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김 교수가 재반론을 펼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김 교수는 5월 30일 새벽, 덕수궁 앞에 설치되어 있던故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대가 정치·사회적으로 무관심한지를 강하게 비판한다. “지금 너희에게 데모할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 도리어 만류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너희는 뭘 해도 늦었기 때문이다”(김용민 2009a)라는 그의 질타는 이 논쟁을 ‘20대 포기론’이라는 타이틀로 규정하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한다.

20대는 여기에 ‘격화’ 반응을 보였고 김 교수는 이러한 20대의 반응을 “너나 잘해` 속에 묻어 있는 `우린 이대로 살래’의 강한 시사, 이걸로는 제 글에 대한 설득력만 실어줄 뿐입니다”(김용민 2009b)라고 무시한다.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의 특성을 온전히 갖고 있는 20대들은 (Tapscott 2009) 이 논쟁을 인터넷 공간에서 ‘20대 개새끼론’이라고 포

---

\* 이 논문의 초고가 『2009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고려대학교 2009/12/18~19)에서 발표된 바 있다.

장하면서 반론의 수위를 높였다. 한 매체의 표현처럼 “20대 포기론’에 인터넷이 들썩”(주간조선 2074호)였다. 이른바 세대 간 설전이였다(주간한국 2009/06/23).

20대 포기론 논쟁에서 보여준 그들의 흥분에는 ‘상이한’ 두 스타일이 확인된다(주간조선 2074호). 먼저 “왜 정치적 무관심을 문제 삼는가?”라는 반응이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득(得)’이 되는 세상에서 자라온 그들이 이를 ‘실(失)’의 차원에서 한탄하는 윗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충분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는 과거처럼, 화염병 들고 바리케이드 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을 정치적 문제의식이 없는 ‘패배자’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정리하면, 전자는 정치적 무관심 그 자체이고 후자는 나름의 정치적 관심이 표출된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 두 스타일은 20대를 양분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 두 스타일이 동시에 확인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만큼 20대 ‘전체’가 이슈에 반응했다고 할 수 있을까? 20대는 “우리 스타일이 왜 문제야?”라는 동일한 전제에서, “내버려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20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까?

불과 2년 전, 20대를 절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 답론이 있었다. 이에 20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석훈(2008)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라면서 비저항적 20대의 모습을 한탄했고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구조에 속수무책으로 잠겨있다!(lock-in)”면서 20대의 상황을 개탄했다. 우석훈은 후속 연구에서도 20대가 겁에 질려 있고 쫓아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우석훈 2009b), 여전히 ‘20대의 혁명’을 주장한다(우석훈 2009a). 하지만 이에 대한 20대의 ‘반론’을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2008년도 ‘촛불집회’ 이후에는 아예 ‘바보 20대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게다가 이 연구들은 “20대의 특징은 무엇

일까?”라는 기초적인 물음부터가 아니라, 바로 “20대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를 찾아봅시다!”라고 외친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20대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분석은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전상진 2009; 오찬호 2009), 혹은 10대에 대한 상대적인 칭찬으로(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이창호·정의철 2008; 이해진 2008) 20대를 역설적으로 왕따시키는 전략으로 나타났다(박권일 2008). 촛불을 든 10대가, 긍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Web 9 2.0 세대〉(김호기·고동현·김인정 2008)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은 ‘88만원 세대=무기력한 20대’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언론도 “형님들, 토익책 덮고 촛불 좀 들어요”(레디앙 2008/05/22), “그 많던 20대 ‘광장세대’는 어디로 갔나”(한겨레 2008/05/19) 등의 기사를 통해 20대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을 한탄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20대는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고(레디앙 2008/05/23), 자신들이 현재 가장 다급하게 느끼고 있는 취업에 대한 공포를 제발 이해해 달라는 하소연하기 바빴다(오찬호 2009, 375). 이때의 20대는 왜 지금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이 연구의 전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20대 대학생을 명료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2) 20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 연구는 20대의 ‘헛갈리는 정체성’을 세대갈등이나(오나라 2000; 박영신·김의철 2004; 최상진·김양하·황인숙 2004), 혹은 세대 간 차이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명진 2004, 16-17)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헛갈리는 ‘그 자체로’ 접근한다. 이 연구는 20대가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다양한 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른바 지평(horizon)에 대한 이해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20대 대학생들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어떤 기준

으로 해석할까? 해석의 지평이라는 것이 좁혀지거나(narrowness of horizon), 넓혀지거나(expansion of horizon),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opening up of new horizon) 확인될 수 있듯이(Gadamer 1998, 300-307), 20대는 민주주의 이슈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을까? 때론 침묵하고 때론 흥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민주주의’가 그 대상이어야 할까? 앞선 내용을 볼 때, 20대와 민주주의가 분명 함께 설명될 지점이 있는 것도 같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20대를 포기한 것이며, 우석훈은 20대가 이전 세대처럼 민주주의를 외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20대가 촛불을 들지 않았다든 행위만으로도 바보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촛불 자체가 민주주의 담론 속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경향닷컴 촛불팀 2008; 김진석 2007; 김호기 2009; 민경배 2009; 조기숙·박해윤 2008; 한홍구 2008).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 이는 불의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러한 불의에 대한 저항의 수위가 나름 선명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을 20대의 ‘유동적인’ 지평에 투입해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해석의 지평’이라는 차원에서 몇대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것이다”(Barber 1996, 355).라는 표현처럼 이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적 개념 형성(박진완 2001, 37)에 그 기초가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상당수가 ‘엄격히 고정된’ 민주주의 규정으로부터 현실의 간격을 찾는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이후의 모습을 걱정하거나(Crouch 2004),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변형을 평가하거나(최장집 2006; 2008), 특정한 정책의 비민주성을 한탄하는(정규호 2009; 최형익 2006)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전제가 오히려 “20대 대학생세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질문을 의미심장하게 만든다. 때론 침묵하지만 때론 흥분하는 20대,

그 흥분의 수위가 예측 불가능한 20대, 말 그대로 ‘헛갈리는’ 20대가 과연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점으로 해석할까?

2절에서는 연구주제를 구체화시킨다. 먼저 ‘후기청소년 세대’라는 표현의 타당성을 ‘세대사회학’적 이론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를 ‘감정의 사회학’으로 보충한다. 이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변수를 통해 세대 ‘내부’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3절은 방법론적 접근과정이다. 1년 7개월에 걸쳐,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 질적연구의 흐름을 소개한다. 4절은 분석결과이다.

## 2. 이론적 논의를 통한 연구모델의 구체화

### 1) 왜 ‘후기청소년 세대’인가?

지금까지 20대와 대학생 그리고 후기청소년 세대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후기청소년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를 ①특정한 연령 집단을 ‘세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유 ②그 세대의 명칭으로 ‘후기청소년’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보자.

#### (1) 세대개념은 20대를 찢어서 볼 수 있게 한다<sup>1)</sup>

왜 20대 대학생을 표현하는데 ‘세대’의 개념을 사용되었을까? 세대는 넓은 그물(net) 안에 존재하는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다(Rosemann 1995, 5-6). 비슷한 연령대,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

---

1) 여기서의 논의 중 일부는 연구자의 이전 연구(오찬호 2009, 362-363)와 중복된다.

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의미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할 때, 세대는 이를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Eyerman and Turner 1998; Giesen 2004, 33-34). 세대를 사회학적 맥락에서 최초로 해석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은 세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 → 세대맥락(generation as actuality) → 세대단위(generation unity)』로 설명한다(Mannheim 1927). 이는 특정한 집단이 일련의 흐름에 따라 견고화되는 모습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여러 연구들이 이 도식의 단순한 응용을 경고한다(Esler 1984; Kertze 1983; Pilcher 1994; 박재홍 2001; 2003; 전상진 2002; 2003; 2004). 이들 연구는 세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과 실사 순차적 흐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경험의 공유만으로는 세대형성의 과정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만하임 역시 특정 집단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견고한 세대’가 되는 것만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경험이 공유될 때의 모든 ‘반응’에 주목하는데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활발한 유형(leading type)에 주목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회하거나(diverted type), 혹은 억압받는(suppressed type) 세대도 존재한다(Mannheim 1927, 57-58). 이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이유는 동일한 조건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가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역으로는, “동년배 ‘내’의 다른 세대들이 공유했던 경험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의 세대연구는 ‘견고한 하나의 세대’를 무작정 설정하지 않는다. 전상진·정주훈(2006)은 대학생 세대가 자율성과 의존성이 융합된 역설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노명우(2004)는 경제적 위기가 청년 세대 ‘내’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강조한다. 전상진(2009), 오찬호(2009) 등은 2008년도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20대 세대 ‘내’의 모습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년배



세대 ‘안’의 여러 모습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시, 20대 포기론 논쟁을 보자. 왜 이 논쟁이 세대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까? 세대는 20대의 ‘동일한 상황’을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20대를 ‘세대’로 묶게 되면, 그들이 공유하는 상황, 혹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대의 반응은 ㉔정치적 관심이 왜 당연한 것인가? ㉕왜 과거식의 정치적 참여만을 강조하는가? ㉖정치적 관심 못 가져서 미안하다고 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정도로 정리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㉗ ‘취업’ 걱정이 태산인데 정치적 관심이라니? ㉘ ‘취업’ 준비에 바쁜 것 생각하면, 나를 참여하는 것 아닌가?! ㉙미안하다. 난 ‘취업’ 준비도 벅차다 는 ‘공유지점’이 숨겨져 있다.

결국, 20대는 ‘취업을 어떤 식으로든 고민해야 하는’ 동일문제 안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운명에 대한 해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다름’이 하나의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세대개념은 오늘날의 20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취업고통’을 함께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 (2) ‘후기청소년’은 20대 대학생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묘사한다

20대 대학생을 ‘후기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학생의 현실이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신체적 변화를 통해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준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는 연령집단을 말한다(정현숙 2009, 8-9; 한상철·조아미·박성희 1997, 28). 동양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되면서 사회적 대우를 받는 전(前) 단계가 청소년 시기이다(노용오 2005). 일반적으로 15~20세 정도를 청소년기라고 하며, 사회적 연령으로는 중·고등학교 시기(14~19세)가 된다. 체격이 왜소하든, 정신적 수준이 미달이든, 혹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든 간에 20세(만 19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음주도 허용되면서 이른바 ‘공식 성인’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20대들은 단지 투표를 할 자격만이 주어졌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이전의)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그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moratorium)한 상태다. 정확히는 유예 ‘당한’ 상태다.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대학’이 등장한 이후 항상 존재했지만, 최근의 특징은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다는 것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실업률은 8.1%이다. 이는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률이 무려 20%에 육박한다(조성주 2009, 91). 경제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20대는 2008년에 비해 19.8%가 증가했다. 대학생 중 39.3%가 휴학을 통해 ‘졸업 유예’를 선언한다(연합뉴스 2009/09/21). 그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이다.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뉴시스 2009/07/29).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 획득이 늦어지면서 20대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김현철 2003). 최근, 과거와 달라진 이들의 모습이 헬리콥터족, 캥거루족 등으로 묘사된다. 부모는 여전히 대학생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간섭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캥거루새끼처럼 부모 품에 암전히 안겨 있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대학생 모습이다. 물론 당사자들 기준에서는 과거와 ‘같은’ 유예생활 중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세~28세<sup>2)</sup>의 대학생을 ‘후기청소년 세대’라고 한다. 이 명칭은 그들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피해자임을 증명한다. 후기청소년 세대라는 표현은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이들 중 55%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통계청 2009)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

2) 이는 평균 대학졸업 소요기간 5년 3개월에 군복무 2년,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11개월을 합친 수치이다.

## 2) 후기청소년 세대의 여러 유형—세대와 감정의 만남<sup>3)</sup>

오늘날 20대가 공유하는 경험은 ‘취업문제’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세대의 ‘민주주의 이해 지평’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유된 경험과 세대의 현재모습을 인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맥락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험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정(emotion)’이다.

감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나의’ 감정(my feeling)이라는 심리학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학의 주된 주제가 아니었지만(김경동 1989, 1), 최근의 사회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감정(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의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후기 근대사회를 ‘감정의 시대(Age of Emotion)’로 표현하거나(McCarthy 1989), 감정이 ‘이성의 공통분모’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Collins 1993) 등이 대표적이다.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감정은 명백한 ‘집단의 감정(we-feeling)’이다(Cooley 1964). ②감정은 하나의 사회적 작품(social things)이다(MaCarthy 1989). 그래서 감정은 문화의 규범에 따라 모습지어지고 조직되고 생성되어진다(김경동 1989, 7-8; 엄묘섭 2009, 12). ③감정은 문화적 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느낌(feeling)이 아니라 ‘느낌의 규칙들(feeling rules)’이다(Averill 1980; Hochschild 1975).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실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렇다면 이 공포라는 감정은 실직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실직 바로 그 순간에서야 처음으로 느끼게 된 지극히 ‘개인’의 감정일까? 하지만 노동자들은 본인보다 먼저 실직한 타인의 모습에서 실업이 경제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위축시키고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즉 실직을 하지

---

3) 여기서의 논의 중 일부는 연구자의 이전 연구와 중복된다(오찬호 2009, 361; 367-372).

않아도 실적이 ‘공포’ 라는 감정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미 학습한다(Mills 1956; Reddy 1987). 잭 바바렛(Jack Barbalet)은 이를 사회적 공포라 한다(Barbalet 2007, 264-265).

세대사회학이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다양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집단성원 모두를 똑같이 덮는 담요가 아니다(Barbalet 2007, 119; 266-267). 감정은 동일한 경험에 대한 다른 반응을 실질적으로 야기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가 단순히 사회문화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 구조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세대는 바로 이러한 감정 ‘들’ 이 얽혀 있는 특정한 ‘집단감정’ 의 결과물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느끼는 순간’ 만이 아니라, ‘무엇을 느꼈을 때, 이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후속 느낌’ 까지가 사회적 감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원인의 방향, 즉 귀인(attribution)의 차이가 바로 행위의 차이가 된다.<sup>4)</sup> 행위자는 특정한 귀인을 개인에게(내적 요소) 결부시키느냐, 아니면 사회와(외적 요소) 관련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Heider 1959). 테오도르 켐퍼(Theodore Kemper)도 이를 주목한다. 그는 행위자가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상황을 외부의 잘못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책임을 추구할 타자를 뚜렷하게 설정하여 이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임에 주목했다. 반대로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경우, 행위자는 일종의 자아성찰에 빠지게 된다. 켐퍼는 이를 (공포에 대한) ‘반란’ 과 ‘예속’ 으로 구분한다. 반란은 공포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예속은 공포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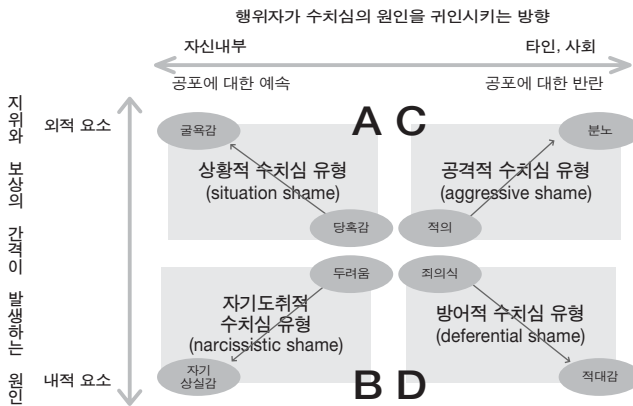
---

4) 이에 대해 본고의 심사위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물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가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귀인이 곧바로 행위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감정의 발생은 유발과정뿐 아니라 통제의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의 유발과정도 그러하지만 통제과정에서도 이성이 중요하다.” 이 지적은 연구기간 내내 논쟁이었고 감정의 사회학적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게 돌린다(Kemper 1978). 바바렛은 이러한 귀인적 구분을 ‘수치심’에 적용한다. 수치심은 개인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간격을 보일 때 등장한다. 바바렛은 여기에 캠퍼의 귀인적 구별을 첨가하여 <그림 1>과 같은 ‘수치심의 사회적 유형’을 만들어낸다(Barbalet 2007, 209).

그림에서 세로축은 사회적 지위와 특정한 보상의 간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심의 일차적 원인을 나타낸다. 이는 두 갈래로 구분된다. 먼저 행위자가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하는 경우다. 이를 외적 요소로 인한 수치심 발생이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는 행위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경우다. 즉 지위와 보상의 간격을 행위자 자신의 기준자체가 ‘미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다. 얼핏 이 두 갈래는 비슷하지만 ‘기준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가로축은 지위와 보상의 간격으로 발생한 수치심에 대한 원인을 행위자 본인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와 타인 혹은 사회

<그림 1> 수치심의 사회적 유형<sup>5)</sup>



5) 이 표는 바바렛(Barbalet 2007, 209)의 논의에 엄묘섭(2009, 24-26)의 설명을 첨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로부터 찾는 경우로 구분된다. 바바렛은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유형화한다.

상황적 수치심(A)은 지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사회적 요소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치심에 대해서, 행위자가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으면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낮은 단계의 상황적 수치심은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당혹감’으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정도가 된다. 그러다가 사회적 보상체계가 더욱 형편없어지고 그럼에도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자기로부터 찾다보면, 결국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인가?”라는 ‘굴욕감’이 나타난다. 자기도취적 수치심(B)은 행위자의 지위가 부족하여 보상과의 간격이 발생할 때, 행위자가 이 원인을 A처럼 ‘스스로에게’ 찾는 경우다. 이 감정의 낮은 단계에서의 행위자는 스스로 미약함을 알게 되면서 일종의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식의 ‘두려움’을 가진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행위자는 “어차피 내가 넘볼 것이 아닌 것 같아요”와 같은 ‘자기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공격적 수치심(C)은 지위와 보상의 간격이 외적 요소로 인해 발생할 때, 이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그렇기에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진다. 초기 단계에서는 “뭐야? 이것이 내 잘못이야?”라는 ‘적의’ 적 감정이 후기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두고 보자!”라는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방어적 수치심(D)은 지위와 보상의 간격이 내적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수치심에 대해서 행위자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서 발생한다. 이 감정의 낮은 단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지?”라는 ‘죄의식’을 보여주지만, 높은 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식으로 외부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가능하게 하는 지위와 보상의 문제가 취업문

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취업문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자 공포다(조성주 2009, 96). 그래서 20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 자세다. 그러면서 취업자격, 곧 지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영혼을 팔 자세로 취업준비를 한 20대의 스펙은 화려하다. 4.0이 넘는 학점, 900점대 토익, 해외연수, 인턴활동, 공모전 입상 등은 취업준비생의 지위를 상승시킨다. 결국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의 상승된 지위를 만족시켜주는 보상을 찾게 된다. 그런데 특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사회는 “원하는 보상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 2009년도 기준으로 대졸 초임 격차가 무려 2,880만 원이다(최대 4,200만 원↔최소 1,320만 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지난 20년간 40%나 증가했다(1986년 9%→2005년 49%). 대기업 대졸 초임은 중소기업 6년차 임금과 비슷하다(위클리경향 852호).

이처럼 후기청소년 세대는 지위와 보상의 문제가 얽힌 ‘취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을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원인을 어디로 귀인하느냐의 문제가 동반된다. 내사(內射)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부족한 자신을 탓한다. 그리고 취업준비에 ‘더’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취업의 문이 열리리라 믿는다. 외사(外射)는 타자에게 이 모든 수치심의 책임이 있다고 귀인하는 경우다. 이러한 귀인에 따라 제각기 구체화된 행위자들(crystallizing agents)이 바로 후기청소년 세대 ‘내’ 세대 ‘들’이다.

### 3. 연구방법 및 과정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가 바탕이 된 질적 연구로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통계적 수치보다 자료의 독특한 사례들에 근거하는 포화의 원리(saturation-principle)에 이 연구의 바탕을 둔다. 포화의 원리는 샘플의 '수량'이 아니라, '맥락'의 전형적 지평을 파악한 후, 부분적인 것을 일반화하는(seeing general in the particular) 시도이다. 물론 이 과정이 정량적 방법에서처럼 기계적 검증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성찰적인 노력(Glaser and Strauss 1967, 5)을 건지한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연구자의 전문적 지식과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서 연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6, 50-57). <그림 2>는 이러한 자세가 유지된 연구과정 전반이다.

연구과정을 3단계로 전개시킨 이유는 질적 연구가 기본적으로 '나선행(abduction)' 연구를 통한 효율적 연구진행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나선행 접근은 연구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맥락에 지속적인 의심을 부여하면

〈표 1〉 연구과정

단계	일시	방법	목적	주요이슈	이슈별 쟁점 키워드
I	08년 6월	참여 관찰	세대 내 유형구분	쇠고기수입관련 촛불시위	집회의 자유 vs. 법치주의
II	09년 1월 ~ 8월	심층 인터뷰	세대 내 유형들 중단분석	미네르바 검찰구속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질서혼란
				용산철거민 화재	사회적 연대 vs. 불법폭력시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무죄추정의 원칙, 언론의 성찰 등 *
				쌍용자동차 파업	비정규직 보호 vs. 무리한 요구
III	09년 11월 ~ 10년 3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세대 내 유형별 교차 인터뷰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인명사전 등재	민주주의 vs. 경제성장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경우 찬반성격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는 당시의 열광적이었던 '노무현 추모열풍'이 연구과정에 반영된 것임.



서 연구전반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한다(Glaser and Strauss 1967). 현장연구에서 이러한 객관성은 ‘유연한 연구설계(flexible design)’라는 성찰적 자세를 통해 구축된다. 이 설계는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이 연구 이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된다(김영천 2006, 120). 본 연구의 II, III단계는 이러한 연구설계의 유연함으로부터 고안된 것이다.

I단계의 목적은 ‘촛불시위에 대한 대학생의 생각’을 단순히 찬반(贊反)의 구도에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명의 대학생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후기청소년 세대가 촛불시위를 최소한 이전 세대의 기준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민주주의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라는 물음에 “네? 촛불을 꼭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드는 것인가요?” 혹은 “아이고, 그렇게 거창한 것 좀 묻지 마세요!”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는 촛불을 드는 특정한 행동에는 반드시 특정한 정치적 의지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기존의 잣대가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나는 강의 중이던 강좌의 수강생 30명과 함께 ‘촛불시위에 대한 나의 기록’이라는 주제의 현장조사를 2008년 6월 10일 화요일에 실시하였다.

I단계는 이들의 필드 다이어리가 분석대상이 되었다.<sup>6)</sup> II단계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를 동반시킨 여러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후기청소년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고백컨대, 처음에는 이 과정이 아주 우연적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사건과 용산철거민 화재사건이 발생한 2009년 1월 말, 나는 촛불시위 때 나뉘는 ‘사회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

6) 조사원들의 필드 다이어리 분석은 질적 연구의 주요기법이다. 이 기법은 동일한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조사원들의 ‘상이한 기술(記述)’을 확인하여, 연구자가 현상의 의미를 얼마나 성찰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나의 현상을 기술하더라도 조사원의 성향, 조사시기 등에 따라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Porter 1994).

〈표 2〉 후기청소년 세대의 유형별 중단분석을 위한 대상자

세대 유형	소속 (2009년 기준)	성별	나이	표시 기호 *	특징
A	서울 S대 경영학과 4학년	男	27	A27M	토익 900점(응시 18회) 금융권 관련 자격증 3개 보유
	서울 S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女	24	A24F	토익 960점(응시 24회) 어학연수 1년
B	서울 M대 문헌정보학과 5학년	男	30	B30M	현재 10학기, 공무원 시험 준비 중 토익 710점(응시 2회)
	서울 D대 중어중문학과 3학년	女	22	B22F	공무원 준비 중 토익 680점(응시 2회)
C	경기 A대 천문우주학과 4학년	男	28	C28M	어학연수 2년, 토익 920점(응시 7회) 행정인턴 중
	경기 S대 관광경영학과 4학년	女	26	C26F	토익 940점(응시 24회) 교내취업면접 동아리 회장
D	경기 A대 경영학과 2학년	女	21	D21F	인터넷 쇼핑몰 창업준비 토익 510점(응시 1회)
	경기 S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	男	26	D26M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2년차 토익 560점(응시 2회)

\* <A27M>은 세대유형 A에 속하는 27세 남자를 말한다.

주장한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 이들의 ‘매우 달라진 태도’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달라짐’에 놀란 것은 순전히 관찰자의 시선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용산 철거민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명백한 국가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내가 ‘미리’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명백한 착오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슈가 해석되어지는 원천적 지점은 언제나 동일했다. 20대들의 ‘다른’ 응답 속에는 ‘같은’ 지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둘러싼 ‘취업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20대가 특정한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을 ‘후기청소년 세대’의 개념을 활용하여 중단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 2〉는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 구축된 새로운 인터뷰 대상자이다.

I단계 연구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했다. ① 2008년도 초불시위에 대한 최소한의 인지, ②졸업 후 진로가 진학이 아닌 경우, ③취업준비를 이유로 한 한기 이상 휴학을 한 경험이 있을 것.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④연평균 가구소득이 1,950~5,850만 원 사이<sup>7)</sup> ⑤종단분석을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국내 거주 보장 등의 기준을 통해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유형별 종단분석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종단분석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검찰 구속사건(2009. 1) → 용산 철거민 화재(2009. 1)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2009. 5) → 쌍용자동차 파업(2009. 7~8)” 등의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졌다. 각 항목들은 당시 어떤 식으로든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야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문제와 연결되었고 용산 사건은 시장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적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위와 보상의 간격의 원인이 외적 요인인지 내적 요인인지를 구별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치심의 원인을 행위자가 어디로 귀인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자는 인터뷰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학생들의 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수치로서 이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①공인된 외국어 시험에 대한 응시자체가 없으면 이를 자격미달의 지위상태로 판단, ②동일한 외국어 시험에 4회 이상 응시를 했다면 점수에 상관없이 기준 이상의 지위상태로 판단,<sup>8)</sup> ③

7)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3,900만 원을 기준하여 ±50%의 범위에서 수치산정.

8) 이 기준에 대해 “4회 이상 응시하고도 점수가 낮다면 응시자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것인데 이를 기준 이상의 지위상태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적으로 수긍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위’는 취업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지만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음을 밝힌다.

휴학의 사유가 ‘취업준비’와 관련되었을 경우,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이를 기준 이상의 지위상태로 판단, ④뚜렷한 목표로서가 아니라, 도피의 차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자격미달의 지위상태로 판단 등이다.

III단계는 II단계 분석에서 나타난 의미들에 대한 재확인 과정으로서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에 실시되었다. 이 단계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경험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이 방식은 참여자들 상호간의 불일치한 의견에서 행위자 행동의 동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인터뷰에서처럼 ‘단순히 듣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즉각 응답하는 다른 참여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Morgan 1997).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유형의 대학생들을 고의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 박 전 대통령 친일인명사전 등재(1차), 무상급식(2차) 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에 대한 상호간의 생각을 듣고자 했다. 이는 ‘민주화가 우선인가? 산업화가 우선인가?’ ‘선별적 복지가 타당한가? 보편적 복지가 시급한가?’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한국적인 논쟁을 후기청소년 세대에게 적용하여, II단계까지 추출된 의미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나는 급전환 질문(flip-flop interview) 기법을 통해 ‘차이의 해석’을 확인했다. 이 기법은 고의적으로 ‘극단의 상황’을 질문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가리키며 “이 친구가 자네 스타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논리적인 반론을 펼칠 수 있나요?”라는 식이다.

I~III단계의 과정은 후기청소년 세대 ‘내’를 살펴보는 일련의 성찰적 접근이다. 주요 키워드는 ‘취업’과 ‘민주주의’다. 얼핏 이 단어들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두 변수를 세대사회학, 감정의 사회학이라는 이론적 자원 안에서 응용하면서 그 ‘상관성’을 1년 7개월간의 종단적 분석으로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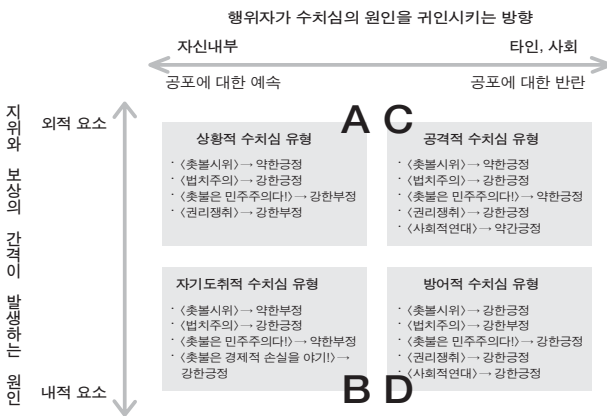
## 4. 분석결과

### 1) I단계 분석: 후기청소년 세대의 광우병 촛불시위 이해

I단계는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시도한 30명의 필드다이 어리에 기초한다. 먼저, 참여자들을 취업준비상황,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 등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수치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그들의 참여관찰의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어떤 해석지평에서 나온 것일까? 상황적 수치심인 A유형을 보자. 이 유형은 법치주의 담론을 긍정하고 권리 쟁취 담론에는<sup>9)</sup> 강한 반감을 보인다. 여기까지만 볼 때, A유형은 촛불시위에 아주 반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A유형은 촛불시위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는다. 27세 남자 대학생은 “이렇

<그림 2> 수치심 유형별 촛불시위 해석지평



9) 법치주의 담론은 촛불시위 당시, 집회의 범위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준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권리쟁취 담론은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게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모습을 보니, 취업준비에만 올인하고 지난달 토익점수 좀 올랐다고 너무 좋아했던 내 모습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고백을 한다. 하지만 촛불에 긍정한다고 해서, ‘촛불은 민주주의’라는 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생똥똥하다. 촛불이 만고진리는 아니다. 저러니까 실업자, 노숙자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다. 본질과 어긋난 요구는 땀 흘리며 평범히 살아가는 다수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23세-여, 3학년).

이는 ‘개인의 문제’를 촛불의 분위기에 편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A유형이 수치심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A유형은 분명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지위상승을 위한 취업준비의 허탈감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촛불의 순수함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이들의 해석이 ‘시작되는 지점’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공격적 수치심인 C유형을 살펴보자. 이 유형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경우다. 그래서인지, 촛불시위를 법치주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며 아울러 권리쟁취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것이 촛불시위에 대한 ‘절대긍정’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나는 촛불시위에 몇 번 참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스스로 취업준비에 지쳐 있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터트릴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 외의 이슈들, 대운하? FTA? 그런 것은 잘 모른다. 그저 고함지르는 것이 좋아서 나왔다(26세-남, 4학년).

여기에서의 촛불은 분명 ‘취업 스트레스 해소용’ 이상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 등의 이유와 함께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유형이 권리쟁취 담론에 강한 긍정을 나타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철폐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취업준비한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건 기회주의다. 그냥 정규직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는가? 권리는 쟁취되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에 한해서다(25세-여, 4학년).

이처럼 C유형의 경우, 권리쟁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기존의 잣대와 완전히 달랐다. 바로 이 지점이 C유형을 ‘지위와 보상의 간격이 외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는 상황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에게 권리쟁취의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다. 이유는 오랜 취업준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담론을 거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취업에 목숨 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고함 좀 지르는 건데, 이를 집시법 좀 위반했다고 잡아가면 되냐?”(28세-남, 4학년)는 식으로 법치주의를 해석한다. 종잡을 수 없는 20대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 ‘다름’은 취업문제와 함께 어떻게든 얽혀 있다.

촛불시위 자체에 강한 긍정을 보이는 유형은 오히려 방어적 수치심인 D유형이다. 이 유형은 “취업의 쓴맛을 오래 전에 알고 아예 포기했어요”(24세-여, 4학년)라면서 스펙관리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 취업준비 자체가 매우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치심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데, 이때 본인이 경험한 ‘비참함’에 토대를 두고 사회적 연대가 매우 필요함을 주장한다.

(취업기준이) 솔직히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 살아온 것도 아닌데, 현실이 너무 폭력적인 것 아닌가요? 촛불시위에 직접 가 본적 없지만, 거기에 나온 이슈들을 보면 뭐랄까? 힘없는 사람에게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느낌?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27세-남, 4학년).

이 유형은 촛불시위를 평가절하는 범치주의 담론에는 강한 부정, 권리쟁취와 사회적 연대에는 강한 긍정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연상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취업의 높은 장벽에 대한 쓰디쓴 경험’이라는 공통분모가 더욱 눈길을 끈다.

## 2) II~III단계 분석: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종단적 분석

I단계 결과에서 알 수 있는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특징은 과연 유의미한 것일까?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정한 이슈에 대한 반응이 세대유형마다 다르다는 것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취업현실이라는 ‘공통분모’가 발견된다는 것을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II~III단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I단계의 가설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림 3>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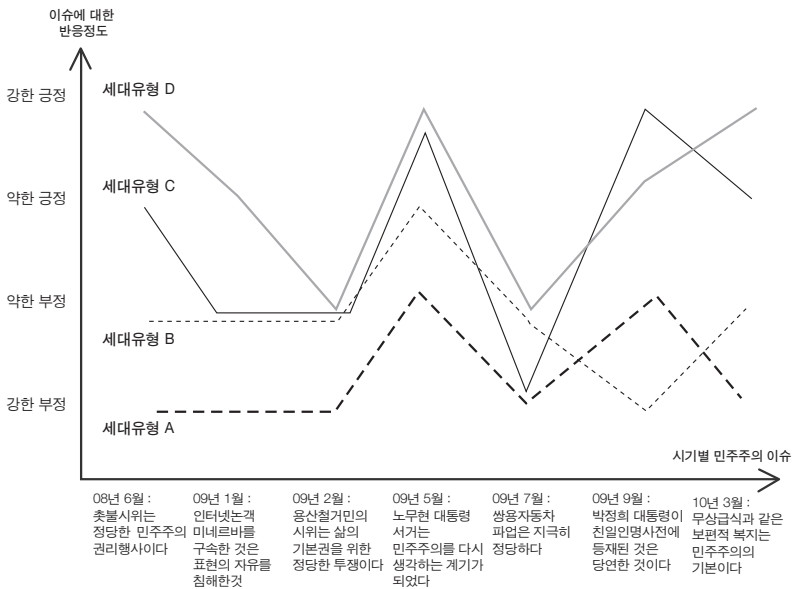
이 그림은 후기청소년 세대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유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몇 가지 중요지점을 살펴보자. 먼저 2009년 1월에 있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후기청소년 세대들의 반응이다. 포털 사이트 Daum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대성 씨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100여 편의 글을 올린다. 이 중, 12월 29일에 작성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려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인정되어 박대성 씨는 서울 중앙지검에 의해



2009년 1월 7일 긴급 체포된다. 미네르바 사건은 박대성 씨의 구속수감 이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말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과잉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보수진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에 강한 공정을 보여준 C, D 유형은 얼핏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 옹호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림 3>에서 처

<그림 3> 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후기청소년 세대 내 의 종단적 반응<sup>10)</sup>



10) 이 표의 Y축은 4개의 카테고리만 존재하지만 각 유형별 꼭짓점들의 위치를 보면 하나의 범주 안에 또 다른 구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슈에 대해서 세대유형 C와 D는 모두가 강한 공정을 보여주는 카테고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 꼭짓점의 위치는 약간의 격차가 나타난다. 이는 실제 '차이'를 나타낸다. 유형 D가 C보다 강한 긍정의 정도가 '더' 강했다.

럼, 이 유형들은 미네르바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에 적극적 동의를 보이지 않는다. C유형은 이러한 담론을 부정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과 6개월 사이에 정치적 성향이 변한 것일까?

솔직히 전문대 출신 아닌가? 그렇다면 그가 말한 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것 아닌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세를 할 표현의 자유가 전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했다면 왜 처음부터 본인의 학력을 밝히지 못했나?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이 ‘당당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미네르바는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었다(C26F).

C유형은 미네르바가 전문대 출신의 ‘비전문가’라는 것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미네르바의 ‘지위’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시 ‘본인의 현실’ 때문이었다. 이 인터뷰 대상자는 ‘당당해지기 위해서’ 취업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토익시험을 무려 24회나 응시했고 점수도 940점으로 상위에 속한다. 게다가 교내취업면접 동아리를 이끌고 있다. 그녀에게 이러한 과정은 “합당한 지위를 얻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별짓기 기제가 된다. C유형의 다른 대상자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준다.

솔직히 미네르바의 구속이 문제가 있다한들, 이건 검찰의 문제이겠죠. 미네르바의 본질은 그대로잖아요. 그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양 말들어지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경제개혁을 이끌고 싶으면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먼저겠죠? 그러지 못한 사람의 뉘etur에 왜 그렇게 칭찬들을 하는지. 저도 지금 80만 원 받고 인턴하고 있어요. 과의 몇

개보다도 못한 금액이죠. 하지만 하나하나의 단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C28M)

역시나 인터뷰 대상자가 미네르바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경험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경험은 묵묵히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80만 원짜리 행정인턴을 수용해야만 하는 본인의 취업현실이였다. 이처럼, C, D유형은 미네르바 구속을 민주주의 탄압의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슨 이념적 문제,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찾지 않는다. 오직 ‘본인의 취업현실’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림 3〉에서 세대유형들의 ‘공통된 성향’도 파악된다.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모든 유형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이는 당시의 전국적 추모열풍을 생각할 때(한국일보 2009/06/01),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지점은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을 때, 모든 유형들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을 긍정하거나(C, D유형) 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았다면(B, C, D유형), 얼핏 파업노동자를 지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저도 비정규직으로 2년째 아르바이트 중이라니까요. 주변에 보면 다 비정규직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규직에 비해 대우가 아쉽다는 생각은 하죠. 하지만 파업을 한다든가, 폭력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배불러 보여요. 다른 일 찾을 생각은 왜 안 해요? 돈이 급하면 해고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저와 비슷하게 말 해요. 나라면 얼른 공

장을 떠나서 돈부터 벌 궁리를 하겠다고 말이죠(D26M).

D유형은 노동자의 해고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왜 의무인가요?”(D21F)를 묻는다. 다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구속을 반대하든, 용산철거민 화재 사건을 공권력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든 그것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별개의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어요. 제가 지금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날로 정규직 되려면 안되죠”(B22F)라는 고백처럼 후기청소년 세대들은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은 비정규직 파업을 보면서 “안쓰럽다”(A24F)는 생각을 가진다. 이 논쟁에서 민주주의의 기준을 기존의 잣대, 일종의 ‘정의로운 잣대’로만 본다면 이들의 프레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 잣대를 기준삼아 이들의 ‘변심’을 탓할 수도 없다. 이 세대들은 단지 자신이 처한 운명적 조건에 기초하여 상황을 ‘유동적으로’ 해석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후기청소년 세대는 결코 이해하지 않는다. 만약 이 세대의 비인간적인 감정을 문제삼고 싶다면 하나만은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취업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떤 접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 말이다.

종단적 분석에서 마지막 두 가지 이슈는 포커스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접근했다. 애초에는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된 논쟁을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증명을 마치고자 했다. 하지만 유독 이 이슈에 대한 후기청소년 세대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최초가설을 좀 더 통시적으로 살펴보게끔 했다. 왜냐하면 쌍용자동차 파업 때 이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프레임이 다른 이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면 ‘후기청소년 세대의 민주주의 프레임은 유동적이다’라는 이 연구의 최초 가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과 관련된 이슈를 연구

지점을 삼은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는 4,389명의 친일행적이 기록된 ‘친일 인명사전’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일본 군관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에 포함된다(서울신문 2009/11/09). 그러자 이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흠집 내기, 무분별한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이어졌다(한국경제 2009/11/22). 그리고 이 논쟁의 구도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나아가면서 〈민주주의 vs.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의 축이 형성된다. 이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은 지금까지의 연구단계에서 확인된 후기청소년 세대의 해석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화와 산업화(근대화)’라는 축을 고의적으로 상호간에 충돌시켰다.<sup>11)</sup>

그룹별 포커스 인터뷰 결과, C유형의 경우, 쌍용자동차 사건 때 노동자의 입장을 외면한 반응이 무색할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 업적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낸다. A유형이 “그래도 경제성장이라는 공헌을 무시하고 과거의 행동 하나를 트집잡아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A24F)라고 하자, C유형은 “아니 경제성장 그것이 온갖 편법으로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고생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나라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었으면, 이걸 무슨, 죽도록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된다 말입니까? 취업하기 전에 젊은이들 진을 다 빼앗아가는 마당에 어찌 애국심을 가질 수 있나요?”(C28M)라고 매우 흥분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C유형에 적극적인 반론을 보인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마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B유형이었다.

---

11) 이 연구단계에서 나는 연구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과정을 ‘녹음’ 없이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최대한 유도했다. 연구자가 ‘메모’를 하는 것 또한 행위자를 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연구보조원 1명이 일정거리를 두고 상황을 메모하는 식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취업스펙에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희 집안의 형편이 이 정도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  
죠. 제가 지금 서른인데요. 아직도 졸업 안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자제가 과연 과거에는 상상이나 되는 일이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가 그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셨고 그 혜택을 자식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B30M)

물론, 이 연구는 이들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연관짓는 프레임이 어디  
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C 유형과 B 유형은 취업현실이  
라는 공통상황에서부터 이슈를 해석하다. 그리고 ‘다른’ 지점은 <그림  
1>에선 설명되었듯이, 수치심의 원인을 귀인하는 방향에 따라서 구별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후기청소년 세대가 어  
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이  
논쟁은 급기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 충돌로 발전한다  
(세계일보 2010/03/18). 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였던  
A 유형과 D 유형의 논쟁을 재구성하여 소개한다.<sup>12)</sup>

D21F: 진작 했었어야 해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깐요.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배고프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가난하면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꾸요. 저는 토

---

12) 이 사례가 재구성되었다는 의미는 대화의 사이마다 연구자가 약간씩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나는 세대 유형들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추임새를 고의적으  
로 넣었고 중요한 맥락이 발견될 때마다 급 전환 질문을 던지면서 인터뷰 과정을 통제했다.

익 한 번 보았는데, 바로 접었어요. 그때부터 쇼핑몰 창업 준비 했어요. 돈은 벌어야 하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A24F: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바로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그것만큼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스스로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리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국가에서 무작정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D26M: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일 자체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래서 눈물 젖은 빵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죠. 형그러하면 형그러정신 자체가 없다니깐요. 꼭 배가 부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A27M: 지금 그 표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의 단골 핑계인 것은 아니시죠?

D26M: 말 다했어요? 아직도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가는 주제에.

A, D 유형의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상태에서도 공통된 맥락은 쉽게 관찰된다. 인터넷 쇼핑몰 개업을 준비 중인 <D21F>와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째 아르바이트 중인 <D26M>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취업경쟁을 하지 못한 본인의 (가난한) 상황을 강조한다. 토익 응시가 18회에 이르는 <A27M>과 24회에 이르는 <A24F>는 본인의 집착이 일종의 책임감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은 취업경쟁에 낙오한 자, 혹은 이를 외면하는 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대화처럼, A 유형은 결국 D 유형의 낮은 지위상태를 매우 모욕적으로 언급한다. D 유형 역시, A 유형의 높은 지위상태를 그저 부모 잘 만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비꼬고 있다.

## 5. 나오며

〈그림 3〉은 이 연구의 1년 7개월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는 왜 20대 대학생들을 후기청소년 세대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들의 세대유형을 살펴보는 데 민주주의 이슈가 필요한지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만약에 분석결과의 처음 사례와 마지막 사례만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세대유형 D의 경우, 최초 조사인 촛불시위 이슈에서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인 무상급식 논쟁에서는 이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언급한다. 이 두 시기의 반응에만 주목한다면 어떤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까? 이 유형은 마치 우리사회에서 진보진영의 정치관을 대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암울한 취업현실이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준다”는 가설을 수립하는 것도 얼핏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시점의 ‘사이’를 연속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체성 규정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후기청소년 세대 ‘내’ 유형들은 이 연구가 조사한 7개의 테마에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보여준다. 도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예측불허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세대 구성원들이 20대 대학생이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문제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후기청소년 세대라는 개념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수치심’이라는 감정변수로 재설정하여 세대 ‘내’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후기청소년 세대가 그들이 처한 취업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른 이슈에 적용시키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앞으로’ 또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발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지점이 있음을 이 연구는 제시한다. 앞으로 이 연



구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연구가설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학적 질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후기청소년 세대를 손쉽게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들 전체를 유용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도입부에서 20대 포기론 논쟁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이유~~

## 참고문헌

- 경향닷컴 촛불팀. 2008. 『촛불, 그 65일의 기록』 경향신문사.
- 김경동. 1989. “감정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22호. 1-2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문음사.
- 김용민. 2009a.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충대신문』 2009/06/08 (<http://press.cnu.ac.kr/news/?news/view/id=5512>, 2009년 11월 8일 검색).
- \_\_\_\_\_. 2009b. “충남대 기고문 쓴 김용민입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2009.6.12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no=170682>).
- 김진석. 2007. “촛불시위, 조금 빼딱하면서도 훌륭한 저항.” 『황해문화』 제60호. 282-303.
- 김철규 · 김선업 · 이철.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 사회』 제80호. 40-67.
- 김현철. 2003.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 시스템으로의 통합에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주.” 『소년학연구』 제10권 2호. 127-154.
- 김호기. 2009. “촛불집회와 새로운 시민문화의 가능성.” 김미숙 편.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한국사회 도덕 살리기 프로젝트』. 동아시아. 226-245.
- 김호기 · 고동현 · 김인정. 2008. “Web 2.0 세대의 사회학: 시민사회와 정보사회의

- 시각.” 『2008 후기사학회대회—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사회학: 또 다른 사회학을 향하여』.
- 노명우. 2004. “청년위기의 불평등 분배.” 『문화과학』 제37호. 118-134.
- 노용오. 2005. 『청소년문화론』. 구상.
- 민경배. 2008. “휴대폰과 촛불의 386 주니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52002012369697006](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52002012369697006)).
- 박권일. 2008. “20대 왕따시켜 10대 찬양하는 ‘돌립병’ 이 돈다.” 『시사IN』 제37호. 2008년 5월.
- 박영신·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 심리탐구』. 교육과학사.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집 제2호. 47-78.
- \_\_\_\_\_. 2003.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집 3호. 1-23.
- 박진완. 2001. “민주주의개념의 전개와 인정의 문제.” 『공법학연구』 제3권 1호. 31-53.
- 엄묘섭. 2009.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제6권. 7-51.
- 오나라. 2000. “한국대학생과 부모의 세대갈등과 세대 차이 시각: 토착 심리학적 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찬호. 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2호. 357-381.
- 우석훈. 2008. “왜 88만원 세대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21호. 133-140.
- \_\_\_\_\_. 2009a.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88만원세대 새판짜기』. 레디앙.
- \_\_\_\_\_. 2009b. “인터뷰—겉에 질린 20대, 그들은 집단 슬럼프 상태.”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년 10월 15일자(인터넷판)(<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52468&cp=nv>).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이창호·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집 3호. 457-497.
- 이해진. 2008.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제 형성.” 『경제와 사회』 제80호. 68-108.
-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제25권 2호. 193-230.
- \_\_\_\_\_. 2003. “‘교육적 세대’의 개념적 적용: 최근 세대현상의 이해를 위한 시도.” 『한국교육』 제30권 2호. 71-90.
- \_\_\_\_\_. 2004.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31-52.
- \_\_\_\_\_. 2009. “2008년 촛불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제2권 1호. 5-31.
-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서울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호 6집. 262-285.
- 정규호. 2009. “민주주의의 퇴행과 녹색의 위기—민주주의의 녹색화를 위하여.” 『환경과 생명』 제59호. 36-54.
- 정현숙. 2009.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연구—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스피키와 커뮤니케이션』 제11호. 7-46.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43-268.
- 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 창.
- 최상진·김양하·황인숙. 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호(특집호). 11-28.
- \_\_\_\_\_.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티스.

- 최장집. 2008.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 최형익. 2006. “한미 FTA,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보평론』 제28호. 225-239.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
- 한상철·조아미·박성희. 1997. 『청소년심리학』. 양서원.
- 한홍구. 2008. “현대 한국의 저항운동과 촛불.” 『창작과비평』 제36집 3호. 12-35.
- Averill, James R. 1980. “A constructivist view of emotion.” In *Emotions,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R. Plutchik & H. Kellermen, eds. Academic Press. 305-339.
- Barbalet, Jack M. 1997. *Emoti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a macrosociological approach*. 박형신 외 역.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 Barber, Benjamin R. 1996. “Foundationalism and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Seyla Benhabib,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8-360.
- Collins, Randall. 2001. “Social Movements and the Focus of Emotional Attention.” In *Passionate politics: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Jeff. Goodwin,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e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7-44.
- Cooley, Charles Horton. 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Schocken Books.
-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이한 역.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미지북스.
- Esler, Anthony. 1984.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2. 99-112.
- Eyerman, Ron, and Bryan S. Turner. 1988. “Outlines of a theory of generation.”

-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 91-106.
- Gadamer, Hans Georg. 1998. *Truth and method*. 2nd. Continuum.
- Giesen, Bernhard. 2004. "Noncontemporaneity, asynchronicity and divided memories." *Time and Society* 13. 1. 27-40.
- Glaser, Barney G., and Anselm L.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pub.
- Heider, Fritz.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hn Wiley & Sons.
- Hochschild, Arlie R. 1975. "The Sociology of Feeling and Emotion." Millman, Marcia & Rosabeth Moss Kanter, eds. 1975. *Another Voice: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Life and Social Science*. Anchor Press. 280-307.
- Kemper, Theodore D. 1978.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John Wiley.
- Kertzer, David.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Mannheim, Karl. 1927.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elissa A. Hardy, ed. 1997. Sage Publications. 22-65.
- McCarthy, E. Doyle. 1989. "Emotions are Social Things: an Essay in the Sociology of Emotions." In *The Sociology of emotion: original essays and research paper*. David D. Franks and E. Doyle McCarthy, eds. JAL Press. 51-72.
- Mills, C. Wright. 1956. *White collar: the american middle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an, Davi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역. 2007.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군자.
- Pilcher, Jane.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 Porter, Marilyn. 1994. " 'Second-hand Ethnography' : Some Problems in Analyzing a Feminist Project." In *Analyzing Qualitative Data*. Alan Bryman and Robert G Burgess, eds. Routledge. 67-88.
- Reddy, William M. 1987. *Money and liberty in modern europe: a critique of historical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mann, Mark. 1995. "Introduction: generation conflict and German history 1770-1968." In *Generation in Conflict-Youth Revolt and Generation Formation in Germany 1770-1968*. Mark Rosemann,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6.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 신경림 역.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한울.
- Tapscott, Don. 2009.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2009. 『디지털 네이티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비즈니스 북스.
- 『뉴시스』, 2009/07/29 (<http://news.nate.com/view/20090729n08790>).
- 『레디앙』, 2008/05/22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834>).
- 『레디앙』, 2008/05/23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853>).
- 『서울신문』, 2009/11/09 (<http://news.nate.com/view/20091109n00869>).
- 『세계일보』, 2009/03/18 (<http://news.nate.com/view/20100318n20061>).
- 『연합뉴스』, 2009/09/21 (<http://news.nate.com/view/20090921n01754>).
- 『위클리경향』 852호(2009년 12월).
- 『주간조선』 2074호.
- 『주간한국』, 2009/06/23.

『한국경제』, 2009/11/22 (<http://news.nate.com/view/20091122n06584>).

『한국일보』, 2009/06/01.

『한겨레신문』, 2005/05/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general/288356.html>).

투고: 2010.3.31 심사: 2010.5.2 확정: 2010.5.11
--